

30여 활동가 월·금 환자도우미

기관차법우회 봉사활동이 병원법당으로 이어져

희망법당 서울시립 동부병원 법당

병원포교는 병고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이 돼 주는 중요한 불사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법회를 운영하는 까닭에 언제나 행정상의 어려움과 인력부족, 자금난 등에 시달려왔다.

게다가 불교계는 예전부터 의료봉사·호스피스 활동 등으로 터를 닦아놓은 이웃 종교에 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활동이 없어 공간을 내어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당건립을 불허하기도 해 불교계입장에서 병원포교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전국 2500여 개의 병원 가운데 30여 곳에나 병원 법당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동부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과 법회 운영을 하는 허기림 법사(법명 범등, 오른쪽)와 자원봉사자들. 허기림 법사는 병원 법당 약사전에서 매주 월, 금요일 기도 및 예불을 올리고 있다.

문제를 인식한 불교계에서는 지난 5월 전국 병원법당 법사 스님들의 연합모임인 전국병원법당지도법사연합회(회장 중제)가 출범하기도 했다. 병원법당 활성화를 위해 스님들이 힘을 모은 것이다.

반면에 재가불자가 이끄는 신행단체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병원법당을 건립해 눈길을 모으기도 한다.

서울 대원사 포교원(원장법사 허기림·법명 범등)은 10월 25일 서울시립 동부병원(원장 김동진)내 3층에 불교법당 약사전을 마련하고 개원법회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허기림 법사(61)는 “기독교 선교장이나 다름없던 시립병원에 불교가 들어 간지 2년 반 만에 법당을 창건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오늘의 결과는 불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리를 냈다. 흐르는 강물처럼 진정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병원은 시립병원임에도 10~20여 년간 개신교측이 원목활동을 하며 터를 깔고 닦아 기독교 병원이나 다름없었다.

대원사가 불교법당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당시 동부병원 운영주체는 서울특별시립 중계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원사를 세운 청량리기관차 불교법우회가 1996년부터 중계노인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법회를 겸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온 것.

환자들을 대하니 마음이 통한 결과다.

허기림 법사는 이러한 결실로 지난해 동부병원의 최우수 봉사자로 선정돼 법당 공간을 마련했다.

현재 동부병원에서 대원사 자원봉사팀은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금요일은 오후 1시 30분까지 봉사활동을 맡고 있다.

법당은 24시간 개방하며 기도 및 예불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환자가 요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회는 한 달에 한 번 직원과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예불, 의식 및 생활불교에 대한 법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02)920-9376 이나은 기자

<부모은중경>에 푹 빠져 포교활동 매진

허기림 법사는 1980년 초반 <부모은중경>을 읽고 불법에 귀의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직장 내 불자들을 모았다. 허기림 법사의 발의로 1984년 7월 칠도청 내 첫 불자회이면서 거사들로만 구성된 직장불자회 ‘청량리 기관차 불교법우회’가 탄생했다.

창립 이후 6년간 신행 활동을 통해 기반을 닦은 법우회는 90년 실천행을 통한 포교에 매진하기로 하면서 직장인 불자회로서는 이례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매주 70~80명의 어린이 불자들이 참석할 만큼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1996년 타 종교모임의 부러움 속에 사무소 근처에 문을 연 자체법당 대원사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허기림 법사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된 후 죽는 날까지 불교 포교를 하겠다고 원을 세웠다. 20여 년간 직장, 어린이, 청소년, 복지관 등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병원포교는 소홀히 했었다”며 “평생불심이 병원에서 무너진다는 능행 스님의 말을 듣고 병원포교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호스피스지역을 받다 상처받는 불자환자들을 보듬고 마음을 위로해야 진정한 불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젊은 불자들이 많았는데 봉사활동, 신행 활동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들이 봉사현장에 많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제가 불안증이라고 진단 받은 것은 지난해입니다. 남 앞에 나서야 할 일이 있으면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이유로 인해 온 것 같습니다.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의 친구들이 언니네 집에 놀러오면 동생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첫째와 친구들의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술 드시고 어머니와 자주 싸우셨고 그때마다 화난 표정으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화난 아버지의 표정만 보면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괜히 주눅이 들고 자신감도 또한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술 드시고 화내시는 것을 보면 전 정말 죽고 싶고, 마음을 비우고 이 해해 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변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셋째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둘째를 시실로 보내려 합니다. 이 판단이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는 모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잘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고 받아들여 지지지가 않습니다.

A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어머니와 싸우거나 화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더니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겠어요. 아버지가 미치지만 미워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는 어린아이

언니가 너무 불쌍해요. 현대 시택에선 언니보고 뭐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해답을 찾는 건 아닙니다. 너무 갑갑하고 미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A 자폐아를 둔 언니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 하며, 언니와 아픔을 함께 하는 동생의 아름다운 마음이 전해집니

자폐아 시설 입소 잘하는 건지요

에게는 생각만 해도 긴장되고 주눅이 드는 일 일거라 생각합니다.

다. 열심히 치료를 받고 정성을 기울여도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형과 동생 때문에 첫째와 셋째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흑시나 놀림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요.

지금은 성인이 되어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요. 이해가 안 된다면 억지로 이해하려할 필요는 없습니까.

둘째도 정상인 사이에서 힘들고 어렵게 고립된 삶을 사는 것보다는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집단 속에서 서로 함께 기댈 수 있다고 보고 받고 사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힘든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을 찾아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언니에게도 또 다른 장애아의 가족들과의 만남으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끼리의 고통을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힘이 될 수도 있었는지요.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에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사람에게겐 거역할 수 없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란 게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야만 하는, 서로간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 불교상담개발원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망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Q 저희 언니부부는 결혼 후 첫째 여아를 낳고 약 1년 후 둘째 남아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행동이 느리고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라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폐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열심히 치료를 받고 또 치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첫째가 외롭고 또 동생이 생기면 둘째 남아의 상태가 좋아질까 싶어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첫째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동생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공 고

대한불교총화종 제67차 중앙총회를 2010년 11월 26일 관음전에서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습니다.

- 아 래 -
1.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원안대로 심의통과
 2.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통과
 3. 제 14대 각원, 부 및 중앙총회의원 임기 만료로 제 15대 각원에 원장 추천자와 총회의원 선임 결의
 4. 신임 제 15대 각 원장 임명장 수여 (중정 예하)
 5. 창신동과 장용사 부지 원상복귀 환원 문제와 수신사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 결의

대한불교총화종

권 선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 고승연합회 복지지원단에서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 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복지원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 사·암에서 버려지는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 자재 수거와 후원금을 받습니다. 부디 고승복지원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여러 불자님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수거품목 : 폐초, 파불,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 [후원금 예금주] 대한불교 고승연합회 (농협) 1124-01-138620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 주시면 택배업체를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복지지원단에서 지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227번지
전화 : ☎ 031)764-3511, 070-4246-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들이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사항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여 드립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大韓佛敎高僧聯合會 복지지원단
총무원장 대종사 광명 합장

후원단체 : 대한불교신인중, 국제불교조계종, 불교미술사회교육원, 해동불교강조계종, 대한민국미술연합, 자비실천운동본부, 용화불교교단, 천도불국사, 백제유예연구원, 불자기수회, 호국연예인예술단, 사천왕경호대, 서울불교방송, 한·중 불교문화원